5천만원 이상 고소득 임가(林家) 17.7% 차지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발표한 '2009년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가의 평균소득은 2,739만원으로 지난해(2,729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5천만원 이상 고소득 임가가 1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30~40대 임업경영자의 가구당 연간소득액은 4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업소득은 765만원으로 지난해(820만원) 보다 6.7% 감소했으나 이는 임업총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재료비, 인건비 등이 상승해 임업경영비가 9.0%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가의 가계지출은 지난해(2,313만원) 보다 2.5%가 증가한 2,370만원으로 이중 식료품비 등 소비지출이 1,846만원(78%), 조세, 연금 등 비소비지출이 524만원(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가 소득 2,739만원 중 2,37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액(흑자)은 369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임가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359백만원)보다 1.3% 증가한 364백만원으로 농가(358백만원)와 어가(257백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가의 소득증대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단기임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산업 육성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의욕이 있는 산주와 임업인을 전문 경영자로 선발 · 육성하여 임업의 선도 주체로 육성하고, 세제지원, 재해보험 확대, 장기저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해 임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73조 창출의 주역인 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 차별화된 임가의 소득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림청, 5월 24일부터 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

–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에 맞춰 적기 항공방제 추진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10년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4월말까지 감염목 제거사업을 마무리하고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5월말부터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금년도 항공방제는 부산 · 경남 등 9개 시 · 도, 43개 시 · 군 · 구 재선충병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5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3회에 걸쳐 45,680ha에서 실시된다.

지역별 항공방제 추진일정은 북방수염하늘소가 분포하는 경기 · 강원권은 5월말, 솔수염하늘소가 분포하는 제주 · 부산 · 대구권은 6월 5일 전후, 전남 · 경북 · 경남권은 6월 10일 전후에 실시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용약제(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는 저독성 약제로 양봉에는 피해가 거의 없으나 6월 중순 아까시나무 개화시기를 감안하여 양봉 농가 등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재선충병 완전방제 실현을 위해 산림청은 총력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